JFMSE, 26(2), pp. 257～269, 2014.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68호, 2014.
www.ksfme.or.kr
http://dx.doi.org/10.13000/JFMSE.2014.26.2.257

창의 · 인성 모델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창의 ·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강버들 · 박종운†
(부경대학교)

A Study o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Change of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hrough Oper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

Beo-Deul KANG · Jong-Un PAR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teachers'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t the model school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his study used pre and post tests to examine the effects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o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operating model school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brought about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changes of students'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However, the changes seemed that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was not rational as the average is about 3.5 point. Secondly, operating model school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brought about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changes of parents'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However, the changes seemed that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was not rational as the average was about 3.5 point like their children. thirdly, operating model school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brought about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changes of teachers'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he changes seemed that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was rational as the average was about 4.5 point unlike their students and school parents. Fourthly, it seemed that the perception o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showed a difference among students, school parents, and teachers.

Key words : Creativity·character model school,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Creative activity

Ⅰ. 서 론

지식정보화에 기반을 둔 혁신 주도적 경제발전과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사회 전략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Choi et al., 2010).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71%는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1, pjun9017@pknu.ac.kr

‘인재상’의 핵심 요건으로 ‘창의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성’(65.0%), ‘도전정신’(59.0%), ‘도덕성’(52.0%), ‘팀워크’(43.0%), ‘글로벌 역량’(41.0%), ‘열정’(29.0%) 등을 지목했다(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08). 5년마다 시행되는 이 조사(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3)에 따르면 2008년 분석 당시 첫 번째 덕목으로 꼽혔던 ‘창의성’은 2013년에는 네 번째로, 두 번째 덕목이었던 ‘전문성’은 세 번째로, ‘도전정신’은 세 번째 덕목에서 으뜸 덕목으로, ‘주인의식’은 여덟 번째 덕목에서 두 번째 덕목으로 올라섰다. 2008년 조사에서 1위와 4위였던 창의성과 도덕성은 4, 5위로 여전히 높은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뜻하는 ‘글로벌 창의인’을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이와 같이 설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 방침’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창의성, 나눔과 배려의 인성, 더불어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세계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직된 국가 주도형 체제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핵심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Moon, 2010). 창의·인성교육은 포괄성, 종합성, 미래지향성, 동시성을 띤다. 창의·인성교육은 영재 등 특정 학생을 위한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교육이며, 교육 내용도 자신의 이해부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종합성은 창의·인성교육이 일부 교과나 활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가정교육 등 모두를 통해 유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자질이나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과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개발과 노력이 요구되는 교육을 뜻한다. 미래 지향성은 창의·인성 교육이 부정적 이미지의 관행적인 교육이 아니라 ‘즐거움, 스스로, 중요한’ 등 긍정적인 이미지의 미래형 교육임을 의미하는 성격이다. 또한 창의·인성교육은 동시성을 띠는데 동시성이란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뜻을 가진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한편, 창의·인성교육의 현장실천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을 창의·인성 교육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2011년 95개였던 창의·인성 모델학교 수를 196개로 늘리고, 2013년 186개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로,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등 학생들의 21세기 핵

심역량을 키우고 있는 학교이며, 창의·인성교육의 실천 노하우를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퍼 주는' 학교를 말한다(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2012).

또한 창의·인성 모델학교의 상시적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단위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컨설팅 결과, 학교장 및 교사는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실천 의지가 확고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도 높다고 발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그러나 창의·인성 모델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실천, 성과점검 영역에 대한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추후 사업 운영 시에 지속적인 역량강화,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단위 수업 수준에서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 검증에 대해 연구된 바는 있지만(Seo & Lee, 2013; Kang & Choi, 2012), 창의·인성 모델학교의 효과 검증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 모델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모델학교 운영으로 인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창의·인성 모델학교의 운영 실태

1. 운영의 목적

본 연구 대상의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교과별 교수·학습에서 효과적인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올바른 인성을 배양시켜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인성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나. 창의·인성 수업모형 적용과 다양한 교과 관련 행사를 통하여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다.

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라. 창의·인성교육 컨설팅 및 일반화를 위한 창의·인성모델학교를 운영한다.

이 모델학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경험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사고가 촉진되며, 종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나와 너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함을 의미한다.

2. 운영의 범위

가. 연구의 운영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본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 모든 교과에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실시한다.

다. 창의·인성교육 범위는 교과수업, 창의적재량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본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마.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 등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기부문화를 일반화하는데 노력한다.

3. 실제 운영

모델학교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운영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실행하였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 연수 및 인식 제고,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독서활동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교과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멘토링프로그램의 운영,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적용한 교실 수업 개선 및 교과 관련 행사를 통한 학생의 창의·인성을 함양한다.

셋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성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너, 나, 우리 함께 해요'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성함양, 지역사회와 교육기부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전개, 창의·인성교육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4. 모델학교의 실태

본 연구 대상 모델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

도시 학생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하며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편으로 자율성이 다소 부족하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다소 많아 조화롭게 어울리는 인성교육과 질서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자신에 대한 긍지가 낮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며, 주변에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필요하다.

나. 학부모

과거에는 학교에 대한 불신이 많았으나 차츰 신뢰가 쌓여가는 추세이며, 학교교육에 대해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학생의 학력 향상에 관심이 가장 많고, 인성교육과 진로지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며 학교행사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미흡하다.

다. 교사

교사의 인적 구성은 15년~ 25년 경력의 교사층이 두터워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과전문성과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높은 조직으로 교사들의 성취동기가 높고 교육열이 강하다. 연구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화합의 인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라. 지역사회

시의 외곽에 위치한 군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지역민끼리 유대관계가 돈독하지만, 열악한 지역으로 결손가정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다.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 에코그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어 체험학습 장소는 풍부하나 문화체험 장소는 다소 부족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U시에 위치한 N중학교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2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운영하였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표집대상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surveyed

Year		Grade	Students	Parents	Teachers
2012	Pre	1	370	319	43
		2	333	200	
		3	364	259	
		sum	1,067	778	
	Post	1	372	265	42
		2	315	257	
		3	342	310	
		sum	1,029	832	
2013	Pre	1	349	342	43
		2	355	330	
		3	346	330	
		sum	1,050	1,002	
	Post	1	376	344	42
		2	328	291	
		3	313	308	
		sum	1,017	943	

2. 조사 도구

설문지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자율진단표를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 4월 초와 11월 초에 각각 2회, 총 4회에 걸쳐 학생, 학무모, 교사에게 투여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와 같이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연구학교) 운영의 전반적 인식에 관한 4문항, '수업 진행과정에서 창의·인성 방법이나 자료가 적절하게 활용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인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와 같이 수업모델 구안 및 적용에 대한 인식 4문항,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나의 흥미를 끌고,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와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용에 대한 인식 4문항(교사 및 학부모는 6문항), '학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고력이 높아지고, 학생 상호간의 긍정적 반응이 높아졌다'와 같이 학습 및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5문항, 총 17문항(교사 및 학부모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Item number and Reliability

Domain	Numbers of items	Reliability		
		student	parents	teacher
Operation	4	.880	.905	.800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4	.873	.880	.818
Creative activity	4(6)	.893	.915	.789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5	.865	.897	.854
Total	17(19)	.957	.966	.838

( ): for parents and teachers

3. 자료 분석

2012년 및 2013년도에 걸친 1년 단위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에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1) 학생의 인식 변화

<Table 3>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의 창의·인성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업모델 구안 및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용에 대한 인식, 학습 및 학교생활

<Table 3>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first grade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55	3.56	.01	.130	.897
	SD	.647	.809			
B	M	3.45	3.49	.05	.655	.513
	SD	.642	.794			
C	M	3.53	3.60	.07	1.312	.190
	SD	.642	.820			
D	M	3.39	3.47	.08	1.511	.131
	SD	.627	.831			
Total	M	3.46	3.53	.07	1.069	.285
	SD	.554	.717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변화에 대한 인식 등 4가지 하위영역 및 전체 인식의 평균점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는 2학년 학생의 2012년의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학년의 경우는 1학년과 달리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업모델 구안 및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용에 대한 인식, 학습 및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등 4가지 하위영역 및 전체 인식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Table 4>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second grade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29	3.42	.13	2.181**	.030
	SD	.671	.807			
B	M	3.19	3.33	.14	2.471**	.014
	SD	.688	.776			
C	M	3.25	3.42	.17	2.756**	.006
	SD	.729	.812			
D	M	3.19	3.32	.13	2.216**	.027
	SD	.704	.781			
Total	M	3.22	3.37	.15	2.639**	.009
	SD	.630	.725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5>는 2012년도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3학년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3학년의 경우는 2학년과 마찬가지로 창의·인성교육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업모델 구안 및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적용에 대한 인식, 학습 및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등 4가지 하위영역 및 전체 인식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Table 5>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third grade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21	3.65	.44	9.050**	.000
	SD	.606	.695			
B	M	3.08	3.54	.46	9.832**	.000
	SD	.507	.702			
C	M	3.18	3.59	.41	8.133**	.000
	SD	.610	.723			
D	M	3.08	3.49	.41	8.460**	.000
	SD	.589	.690			
Total	M	3.13	3.56	.43	9.973**	.000
	SD	.482	.644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6>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학교 운영 전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Table 6>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all grade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35	3.55	.20	6.165**	.000
	SD	.657	.778			
B	M	3.24	3.46	.22	6.972**	.000
	SD	.635	.752			
C	M	3.32	3.54	.22	6.779**	.000
	SD	.677	.790			
D	M	3.22	3.43	.21	6.685**	.000
	SD	.653	.774			
Total	M	3.28	3.49	.21	7.437**	.000
	SD	.575	.700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2013년 모델학교 운영 전후에 있어서 1학년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창의적 체험활동 적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수업모델 구안 및

<Table 7>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first grade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74	3.81	.07	1.451	.147
	SD	.605	.646			
B	M	3.65	3.76	.11	2.260**	.024
	SD	.626	.661			
C	M	3.73	3.80	.07	1.419	.156
	SD	.637	.659			
D	M	3.62	3.72	.10	2.072**	.039
	SD	.610	.674			
Total	M	3.68	3.77	.09	2.009**	.045
	SD	.546	.613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적용, 학습 및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든 영역을 합산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Table 8>은 2013년도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2학년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적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second grade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38	3.51	.13	2.360**	.019
	SD	.656	.796			
B	M	3.33	3.45	.12	2.231**	.026
	SD	.658	.789			
C	M	3.38	3.47	.09	1.511	.131
	SD	.766	.782			
D	M	3.23	3.40	.17	2.921**	.004
	SD	.748	.750			
Total	M	3.32	3.45	.12	2.521**	.012
	SD	.612	.732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9>는 3학년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학년의 경우, 학습 및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아졌으나,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third grade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19	3.29	.10	1.897	.061
	SD	.727	.606			
B	M	3.19	3.21	.02	.509	.611
	SD	.739	.579			
C	M	3.21	3.28	.07	1.236	.217
	SD	.764	.650			
D	M	3.12	3.25	.13	2.378**	.018
	SD	.744	.621			
Total	M	3.17	3.26	.09	1.746	.081
	SD	.659	.552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1, 2, 3학년을 합산하여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운영 전보다 운영 후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able 10>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all grade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44	3.55	.11	3.691**	.000
	SD	.702	.719			
B	M	3.39	3.49	.10	3.309**	.001
	SD	.702	.718			
C	M	3.44	3.53	.09	2.814**	.005
	SD	.756	.731			
D	M	3.32	3.47	.15	4.601**	.000
	SD	.735	.713			
Total	M	3.39	3.51	.12	4.017**	.000
	SD	.643	.672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2) 학부모의 인식 변화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전후에 걸쳐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able 11>은 2012년도 1학년 학부모에 대한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2012년 1학년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에게 있어서도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11>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first grades' parent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55	3.49	-.06	.971	.332
	SD	.664	.806			
B	M	3.45	3.48	.03	.432	.666
	SD	.661	.801			
C	M	3.53	3.46	-.07	1.206	.228
	SD	.605	.776			
D	M	3.49	3.38	-.11	1.687	.092
	SD	.626	.835			
Total	M	3.51	3.45	-.06	1.027	.305
	SD	.552	.727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수업 모델 구안 및 적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Table 12>는 2012년 2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12>에서 알 수 있듯이 2학년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2>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second grades' parent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37	3.42	.05	1.042	.298
	SD	.550	.642			
B	M	3.29	3.37	.08	1.233	.218
	SD	.592	.653			
C	M	3.33	3.39	.06	1.089	.277
	SD	.549	.610			
D	M	3.32	3.26	-.06	.983	.326
	SD	.555	.643			
Total	M	3.33	3.36	.03	.616	.538
	SD	.489	.572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13>은 2012년도 3학년 학부모들의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 1, 2학년 학부모와는 달리 전 영역에 걸쳐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3>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third grades' parent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22	3.82	.60	11.857**	.000
	SD	.518	.675			
B	M	3.15	3.74	.59	11.962**	.000
	SD	.518	.656			
C	M	3.21	3.79	.58	11.318**	.000
	SD	.536	.688			
D	M	3.15	3.70	.55	10.423**	.000
	SD	.554	.712			
Total	M	3.18	3.76	.59	12.667**	.000
	SD	.455	.634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14>는 1, 2, 3학년 모든 학부모의 점수를 합산하여 모델학교 운영 전후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운영 전보다 운영 후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14>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all grades' parent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39	3.59	.20	5.921**	.000
	SD	.606	.731			
B	M	3.31	3.54	.23	6.911**	.000
	SD	.613	.721			
C	M	3.38	3.56	.18	5.821**	.000
	SD	.585	.717			
D	M	3.33	3.46	.13	3.931**	.000
	SD	.602	.757			
Total	M	3.35	3.54	.19	6.214**	.000
	SD	.524	.670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2차 연도인 2013년의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Table 15>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도 1학년 학부모의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평균점수가 모델학교 운영 전보다 운영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Table 15>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first grades' parent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81	3.92	.11	2.543**	.011
	SD	.641	.685			
B	M	3.71	3.89	.18	3.685**	.000
	SD	.649	.654			
C	M	3.76	3.93	.17	3.560**	.000
	SD	.634	.670			
D	M	3.69	3.86	.17	3.422**	.001
	SD	.668	.689			
Total	M	3.74	3.91	.17	3.584**	.000
	SD	.593	.631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16>은 2013년도 2학년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2013년도

2학년 학부모의 경우, 1학년 학부모와 달리 운영 전보다 운영 후에 모든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평균점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Table 16>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second grades' parent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57	3.46	-.11	1.798	.069
	SD	.647	.801			
B	M	3.52	3.47	-.05	.987	.324
	SD	.652	.769			
C	M	3.53	3.46	-.07	1.223	.222
	SD	.647	.748			
D	M	3.48	3.44	-.04	.645	.519
	SD	.770	.770			
Total	M	3.52	3.46	-.06	1.221	.223
	SD	.595	.735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17>은 모델학교 운영 전후에 걸친 2013년도 3학년 학부모의 인식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17>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도 학부모의 경우, 모델학교 전후에 있어서 인식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7>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third grades' parent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34	3.40	.06	1.057	.291
	SD	.668	.650			
B	M	3.30	.646	.16	1.778	.076
	SD	3.39	.647			
C	M	3.31	3.38	.07	1.256	.210
	SD	.662	.610			
D	M	3.28	3.37	.09	1.718	.086
	SD	.650	.640			
Total	M	3.31	3.38	.07	1.537	.125
	SD	.614	.599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18>은 2013학년도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인식 변화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소폭이긴 하지만 모델학교 운영 전보다 운영 후에 평균점수가 높아졌다. 모델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Table 18>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all grades' parent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57	3.61	.04	1.190	.234
	SD	.679	.752			
B	M	3.51	3.60	.09	2.657**	.008
	SD	.670	.725			
C	M	3.53	3.60	.07	2.212**	.027
	SD	.672	.721			
D	M	3.49	3.57	.08	2.692**	.007
	SD	.690	.734			
Total	M	3.53	3.60	.07	2.355**	.019
	SD	.626	.696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3) 교사의 인식 변화

<Table 19>는 2012년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모델학교 운영 전후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2012년도의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으로 교사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9>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teachers in 2012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3.42	4.25	.83	5.469**	.000
	SD	.339	.538			
B	M	3.61	4.19	.58	6.094**	.000
	SD	.290	.546			
C	M	3.48	4.31	.83	3.615**	.000
	SD	.254	1.472			
D	M	3.52	4.04	.52	4.847**	.000
	SD	.266	.653			
Total	M	3.57	4.20	.63	5.617**	.000
	SD	.162	.716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Table 20>은 창의·인성 모델학교 2차 연도인 2013년도에 실시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0>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인식 변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0> The t-test results of perception for teachers in 2013

Domain	M/SD	Pretest	Posttest	Difference of score	t	p
A	M	4.39	4.54	.15	1.373	.173
	SD	.518	.461			
B	M	4.29	4.55	.26	2.496**	.015
	SD	.577	.346			
C	M	4.22	4.47	.25	2.310**	.023
	SD	.552	.428			
D	M	4.13	4.31	.18	1.536	.128
	SD	.558	.517			
Total	M	4.25	4.46	.21	2.148**	.035
	SD	.512	.378			

**p<.01, A: Operation, B: Model design and application, C: Creative activity, D: Change of learning and school life

2. 논의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첫 해인 2012년도에는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2차년도인 2013년에는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2012년도와 2013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창의·인성 모델학교의 운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6,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도와 2013년도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평균점수가 3.5점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창의·인성 교육의 성과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학부모에게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1차년도인 2012년에는 3학년 학부모에게서만, 그리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3학년 학부모에게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able 14, 18>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영역의 평균점수가 3.5점 정도에 머물고 있어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의 결과가 궤도에 올랐다고는 볼 수 없다.

Bae와 Suh(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서, 자녀들의 재학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녀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3-5, 7-9, 11-13, 15-17> 참조).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1학년의 경우, 학교급 간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Yoo(2012)는 교육가치와 교육문제가 수업경영, 교육효과성을 매개로 학부모의 학교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학부모가 학교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요한 요인은 '개인적 교육가치'와 '교육효과성을 통한 개인적 교육가치'이며, 학부모의 학교 신뢰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 주요한 요인은 '학교의 내적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의 역할을 자신의 자녀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개인적 교육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인성교육 정책은 학생이 가지는 개인적 교육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학부모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학교교육 신뢰는 학교의 교육력에 달려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교사의 능력개발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를 때,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정책이 학생 개인의 교육적 가치를 저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내적 문제, 즉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문제가 없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는 달리 <Table 19, 20>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경우, 2012년도와 2013년도 모두 모든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1차년도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초기에 모든 영역의 평균이 약 3.5이었는데, 2차년도 운영이 끝날 때쯤에는 약 4.5에 달해 모델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Yoon과 Shin(2006)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교사 전문성의 하위 역량 중 교과수업 역량과 담임의 학급운영 및 인성지도 역량이 여타 역량들이 비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된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교사 전문성 역량 및 교과수업 역량의 요소는 교사의 경우에는 교과수업, 교과지식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담임의 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 학생수준에 관한 이해로 교사 전문성 요소 우선 순위에 관해서는 서로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Bae와 Suh(2012)는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과 실태 조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인성교육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학교에서의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에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방향은 현직교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사회, 지역기관, 가정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인성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Hong 등(2012)은 창의 · 인성교육 요소별 과학교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결과, 교사들은 창의성 요소가 전체적으로 과학교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생들은 창의성 요소 중 인지적 요소가 정의적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과학 교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창의성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창의·인성교육에 있어서 학교현장에 대한 인식 도조사(Lee, 2012)에서 학부모들은 정부가 강조한 창의·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다는 설문에 평균 2.71점(SD .753)으로 나타나 학교교육현장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3.95(.853)점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 및 역량강화에 대한 프로그램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로 볼 때, 교사가 인식하는 창의·인성교육과 학생과 부모가 인식하는 창의·인성교육 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은 학습동기 부여, 인성개발 등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학부모의 인식 정도가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창의성교육이 학교에서 핵심교육 및 기록평가 항목이 되고 상급학교 진학과도 연계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Lee, 2012). 따라서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조력자로써 좀 더 적극적인 학부모의 역할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창의 · 인성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Jo et al., 2012) 있기는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이 교육정책 결정자, 교사, 학생, 학부모들 간에 상당히 다르게 이해되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정책은 단위학교에서 1차적인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의 관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와는 별개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Jho and Lee, 2012; Jo et al., 2012).

위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여건 조성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에서도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0). 창의체험활동 자원지도(CRM)도 지역사회 연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Kim 등(2010)의 연구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들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원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실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에코그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산재되어 있어 체험학습 장소는 풍부하나 문화체험 장소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아 창의적 체험 활동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관리직, 학부모, 학생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성적과 별개의 교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입시 및 서열 위주의 학생평가에만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창의·인성교육이 현장에 자리잡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와 더불어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가 도모되어야 창의·인성교육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Hong et al., 2012; Jo et al., 2012).

Ⅴ. 결론 및 제언

U시에 위치한 N중학교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2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운영하였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은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3.5점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은 학부모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균 3.5점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은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와는 달리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5점으로 교사들은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조력자로써 좀 더 적극적인 학부모의 역할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교사, 관리직, 학부모, 학생들 간에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겨우 2년에 걸친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으로 현 상황에서 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로 가지고 좀 더 인내하면서 저변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들과 세부적인 지원 전략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창의·인성교육 정책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3년의 기간, 교사에게는 2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기조의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유행처럼 번졌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Bae, S. S. and Suh, M. O.(2012). The teachers' and parent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a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3(1), 57~76.

Choi, S. D. · You, S. S. · Lee, Y. · Jeon, B. Y. and Kim, Y. M.(2010). Prospect of policy on educ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ntract research CR 2010-28.

Hong, H. J. · Yoon, H. J. and Woo, A. J.(2012). Science Teachers' Recogni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Education as Applied to Science Teaching,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6(4), 887 ~908.

Jho, D. H. and Lee, S. M.(2012). How Do Schools Interpret Creative Hands-On Activities Curriculum Social Studies Education, 51(1), 109~122.

Jo, D. S. · Kang, H. S. · Kwon, D. T. · Kim, B. C. · Kim, W. J., Son, M. H., and Ahn, B. C.(2012). A study on Analysis of effectiveness on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policy and development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2 Policy Agenda Research.

Kang, H. D. & Choi, J. Y.(2012). The effects of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o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Primary English Education, 18(1), 173~196.

Kim, H. C. · Choi, C. W. and Min, G. S.(2010). Research on creative activities in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s and a plan connecting youth activity policy(Research report 10-R08),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Lee, E. S.(2012). A Study on educational program and perception levels of school parents for holistic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Research on Holistic Education, 16(3), 101~119.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09). The Manual of 2009 Revised Curricula.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10). Basic plan for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2010. 1)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1). Model school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2011. 10).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2). Pre-workshop hosting plan for checking results of model schools in the second half of 2012 year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2013). Creativity and character model schools workshop for school administrators(2013. 10. 18).

Moon, Y. R.(2010). Now is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Science & Creativity, 2010. February. 6~9.

Seo, E. B. and Lee, S. S.(2013). Development of the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program using needlework with analysis of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6(2), 41~58.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08, 2013), The right people for 100 South Korean companies, Inspection Report.

Yoo, G. H.(2012). A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Trust Formation Effected by Educational Values and Problems Through Instructional Management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0(4), 199~224.

Yoon, J. I. and Shin, H. J.(2006). A study on the perspectives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concerning teacher expertis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3(2), 79~100.

● 논문접수일 : 2014년 01월 26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3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07일